

지역 소식통

정읍시 '천사 히어로즈' 야간 경관개선 사업 완료

정읍시가 '천사 히어로즈' 복합 놀이시설 외벽에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해 시민들의 야간 휴식처로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시는 캐릭터 조형물 13개 4개와 원형 채널 조명 13개 등에 총사업비 1억3천만원을 투입해 LED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천사 히어로즈'는 2018년 12월에 착공해 지난 5월에 준공된 전북 최대 규모의 실내형 복합 놀이시설이다.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즐겁고 자유로운 놀이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정읍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둡고 외관이 창고건물 같아 밝고 쾌적한 느낌을 주지 못한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야간에도 생동감을 불어 넣어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도와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야간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어둡고 캄캄했던 놀이시설 주변이 생동감 넘치는 다양한 컬러의 빛을 연출하며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졌다. 조명은 일몰에 맞춰 자동 점등되고 야간 빛 공해와 수목 생육의 영향을 고려해 심야 시간에는 자동 소등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도로명주소 홍보

정읍시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터미널 및 정읍역 이용객과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배부하며 도로명주소 정책을 홍보했다.

시는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로명주소 홍보 리플릿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배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느 때보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배부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도로명주소는 기존에 사용하던 동·리·지번 대신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일정한 간격에 따라 건물번호를 붙여 표기하는 방식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부곡리 고인돌' 道 기념물 지정

지상식 무덤방·저분구형 묘역시설·의례용 제단 등 탁자식 고인돌로 확인... 학술 가치 뛰어난 유적 평가

고창군의 '고창 부곡리 고인돌(高敞 美谷里 支石墓)'이 2020년 제8차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지정 심의 결과, 도지정문화재(기념물)로 지정됐다.

'고창 부곡리 고인돌'은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강촌마을 인근 고수천변의 낮은 독립된 구릉에 자리한다.

발굴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처음 확인된 희귀한 고인돌 형식으로, 지상식 무덤방과 함께 저분구형의 묘역시설과 의례용 제단까지 마련된 탁자식 고인돌로 확인돼 고고·역사·학술 가치가 뛰어난 유적으로 평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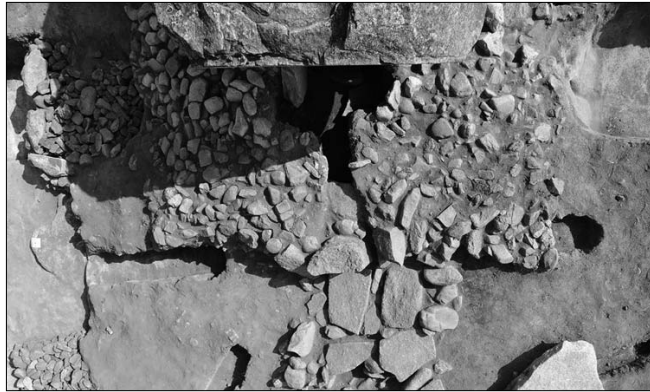
*저분구형(低墳丘形): 무덤방 주위로 강돌과 깎돌을 쌓아 만든 낮은 언덕 형태

고인돌 구조는 관판한 석재(장벽 각 2매, 단벽 각 1매)를 사용해 무덤방을 축조하고, 그 위로 두꺼운 덮개돌(크기 257 X 220 X 70cm)을 덮은 탁자식 구

조다 단벽은 이미 훼손되어 없어졌으나, 조사결과 북쪽에서 단벽의 흔적이 확인돼 평면 '노'자 형태의 무덤방을 갖췄음을 파악했다.

묘역시설은 벽석 축조 후 강돌과 작은 깎돌들을 이용해 단벽은 저분구형 테이고 평면은 장방형(490 X 370cm)이다. 또 묘역시설 북쪽으로는 의례용 제단으로 추정되는 방형의 돌출부(156 X 156cm)가 확인됐다.

고창군에 분포하는 1600여 기의 고인돌 중 탁자식은 6기 정도의 극소수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부곡리 고인돌은 탁자식이면서 묘역시설과 의례용 제단이 함께 마련된 독특한 형식구조로, 청동기시대 권력자의 무덤이자 제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를 통해 고인돌 축조기술과 변화양상, 지역적 특색 등 우리나라 고인돌 연구의 매우 중요한



고창군의 '고창 부곡리 고인돌(高敞 美谷里 支石墓)'이 2020년 제8차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지정 심의 결과, 도지정문화재(기념물)로 지정됐다.

자료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고인돌 왕국 고창에는 1600여 기 정도의 다양한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고창군 전체의 고인돌 현황 파악은 물론 표지판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부곡리 고

인돌의 도기념물 지정을 통해 고창 고인돌에 대해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과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 전북도와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올 사업 마무리 총력... 내년 준비 철저"

권익현 부안군수 간부회의 정부정책 선제적 대응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2020년 4분기를 맞아 올해 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고 내년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 5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올해도 어느덧 4분기를 맞고 있다. 4분기는 올해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성도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에는 예산성립과 동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행

정절차 이행 및 사업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한국판 뉴딜과 혁신성장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또 "각종 용역사업 추진 시 실질적으로 군정에 적용 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책임감

을 갖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용역을 추진해 달라"며 "용역결과물을 정책개발이나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2차 재난지원금 홍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소규모 양돈시설까지 모니터링해 악취 없는 청정부안을 만드는데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가 총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전북과학대학교에서 국도 1호선 신월교차로까지 총연장 1.4km, 폭 20m의 4차선 도로를 개설하고 지난달 28일 전면개통했다.

정읍시, 첨단산단 연결도로 전면 개통

전북과학대~신월교차로 1.4km

정읍시가 총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전북과학대학교에서 국도 1호선 신월교차로까지 총연장 1.4km, 폭 20m의 4차선 도로를 개설하고 지난달 28일 전면개통했다.

이번 첨단산단까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2016년 실시설계 완료 후 2017년 7월 착공했다.

이어 지난달 아스콘 포장 등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추석 명절 전 시민과 귀성객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28일 개통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도로개통으로 신정동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등 3대 국책연구기관의 접근성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시는 첨단과학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며 전북연구개발특구의 핵심지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용산호와 내장산리조트 등의 접근성이 향상돼 시 주요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전망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주요 도로 개통으로 도로 연속성이 확보되고 접근성 향상으로 교통량이 분산돼 시내 교통체증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고창군 '우수상' 수상

고창군이 전국 243개 시·군중 일자리 사업을 가장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선 7기 대표 일자리 사업인 '로컬잡(JOB)센터'가 출범 2년 만에 성공적인 역량을 뽐내며 다각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

5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주관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고창군 그린잡(JOB)센터 운영사업'이 우수상을 받게 됐다. 전북지역 유일한 일자리사업 관련 수상이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대상'은 전국 모든 일자리 사업 담당자들의 꿈의 상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평가는 지난해 추진된 지자체 일자리 사업실적, 사업실적과 고용창출 효과, 지역산업과의 연계, 지역사회 공헌도, 타지역 파급도 등을 꼼꼼히 따졌다.

고창군의 '그린잡(JOB)센터 운영사업'은 고창군로컬잡(JOB)센터를 중심으로 ▲농식품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위한 거버넌스 구축 ▲일자리창출 지원시스템 구축 ▲고용 소외지역 해소 ▲농촌일자리창출 모델 정립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다.

이에 지난해 1164명 구직, 735명 채용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워크넷을 도입해 고용실적으로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최대 고용실적이다. 특히 고창군을 중심으로 14개 읍면별 이장단주민자치위원·부녀회 등 실패할 행정망을 활용한 다양한 구인·구직 수요를 발굴해 연계하는 활동 등이 호평을 받았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생명·농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그린잡(JOB)센터를 구축,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연계한 점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검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함께 잘사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해소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SOC 기반시설 확충과 주요 도시계획도로를 신속히 개설해 시민 모두가 시내 곳곳의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C·리하더리 가설과 상동 주유소부터 상동회관까지 서부산 업도로 개설 등 시내 곳곳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총 570억원(2020년 예산 210억원)을 들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6개 노선 8km 구간 도로개설과 확장사업을 집약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Advertisement for Earth Day featuring a polar bear and the text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The place where it's getting the warmest on Earth 'Arctic' Please protect our home).